넘쳐나는 부산항 고사위기 광양항

부산, 국제노선 지난해보다 18% 증가

물동량도 3개월 연속 사상최대치 경신

광양, 공사 전환땐 '지역港' 전략 불보듯

부산항과 통합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 항만정책의 양대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광양항과 부산항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광양항의 경우 올 들어 국내외 선사가 운영하는 국제 노선이 줄면서 물동량 역시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 인천항에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산항은 국제노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물동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참여정부는 그러나 광양항 활성화대책을 모색하기는 커녕, 광양항을 항만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항만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광양항과 부산항을 동시에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투포트(Two Port)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일 전남도와 광양항에 따르면 지난 4~6월 국내외 선사들의 해외화물 운송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26개 선사가 71개 국제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26개 선사가 운영하던 국제노선 72개에 비해 1개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부산항에서는 71개 선사가 지난해 255개보다 18%가 증가한, 무려 301개의 국제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수치만으로 계산하면 부산항이 광양항에 비해 선사는 2.7배, 국제노선은 4.2배가 더 많은 셈으로, 부산의 바닷길이 그만큼 붐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사와 국제노선의 차이는 고스란히 물동량에 반영되면서, 광양항의 지난 6월 물동량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13만9천500개에 그쳤다.

광양항 물동량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지난 5월의 13만3천500개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지만, 올 들어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 4월의 물동량 14만7천789개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부산항은 그러나 환적화물이 지난 4·5·6월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데 힘입어 지난 6월 전체 물동량이 115만1천여 개를 기록, 한 달 새 물동량 증가율 16.3%로 올 들어 최고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부산항이 이처럼 활황세를 보이는 것은 올 들어 부산항을 통한 해외교역량이 급증하면서 세계 최대 선사인 MSC와 머스크라인을 비롯 국내외 대형 선사들이 앞다퉈 부산항 기항을 늘린데다, 최근 부산항이 컨테이너세를 면제하는 등 생산성 및 서비스 향상에 힘쓴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그러나 투포트 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광양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광양항을 오는 2009년께 항만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항만공사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광양항 활성화에 오히려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양항이 항만공사로 전환되면 정부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될 뿐 아니라 물동량 확보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및 출연금 지원도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광양항의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양항이 부산항과 인천항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광양항이 지역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부차원에서 배후단지 개발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지원하며, 부산항과 광양항을 통합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여성 화합한마당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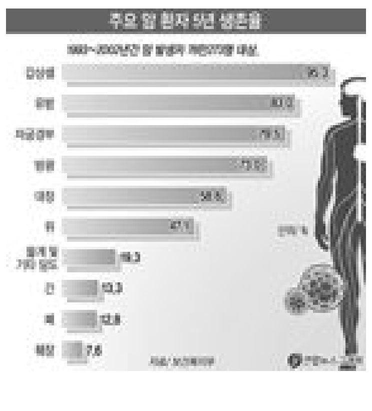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여성단체 회원 1천200여명이 제12회 여성주간(7월 1일~7일)을 기념해 19일 남구 구동실내체육관에서 '1등광주 1등여성 화합한마당 축제'를 가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한국인 평생 4명중 1명 암 걸린다

암발생·생존율 조사

암환자 완치율 46%



우리 국민은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 4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암에 걸린 사람은 10명 중 4명 이상이 완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1993~2002년 암 발생자 78만273명을 대상으로 2005년 12월까지 추적조사해 발표한 국가 암 발생률 및 생존율 통계 내용이다.

▲암 발생률, 4년 새 15% 증가= 1999~2002년 암 발생 건수를 보면 1999년 10만1천25건에서 2002년 11만6천34건으로 4년 사이에 15%가 증가했다. 암 환자는 남자가 24만3천346명으로 여자(18만5천902명)보다 1.64배 많았다. 다만 15~34세에서는 여자의 암 발생이 남자보다 1.8배 많았다. 이 시기에 여자들에게 갑상선암과 유방암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건수로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221.8건이고 남자는 291.1건, 여자 177.1건이다. 우리 국민이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 남자(77세)는 27.7%, 여자(81세) 22.2%가 암에 걸리고 국민 전체로 보면 25.6%가 암에 걸린다는 의미다.

암 발생 순위는 위암이 10만명당 연 평균 2만1천7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의 순이었다.

▲암 환자 절반 정도는 완치= 1993~2002년 암 발생자의 5년 생존율은 44.5%로 나타났다. 이를 전후반으로 나눠 생존율을 계산하면 후반기(1998~2002년) 생존율이 46.3%로 전반기(1993~1997년)보다 4.6%포인트가 높다.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암 치료에서 통상적으로 완치 기준으로 통한다. 5년 생존율 46.3%는 암에 걸린 사람이 100명이라면 이 가운데 46명이 이상이 완치된다는 뜻이다.

여자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55.7%로 남자(35.7%)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등 여성에게 많은 암의 생존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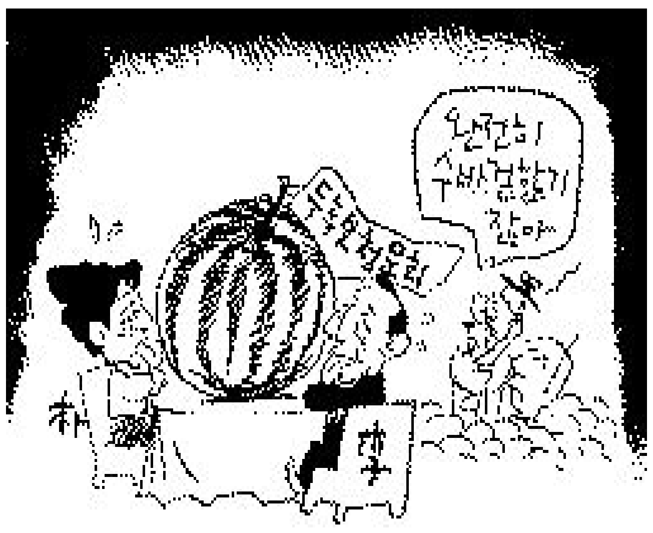
남자의 암 발생 건수가 여자보다 1.64배나 많은 반면 5년 생존율은 여자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그만큼

남자가 여자보다 암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고 치료 예후도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합뉴스

光日만평

- 김종두



그래도 했다는 게 중요하다나?!

"夢陽 여운형 암살세력은 극우파 아닌 박헌영·남로당"

서거 60돌 추모대회서 주장

몽양 여운형(1886~1947) 서거 60주기를 맞아 그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박헌영과 남로당 세력에 의해 암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몽양의 전기 '여운형 평전'를 집필 중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이정식 명예교수는 19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회장 여철연) 주최로 열리는 추모 학술대회에서 '여운형의 이상과 선택 : 냉전의 희생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

이 교수는 사전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소련군사령관 스티코프 일기에 근거해 박헌영과의 불화, 남로당 및 소련군정과 거리를 둔 몽양의 선택, 좌우합작 추진 등을 중심으로 몽양의 말년을 재구성했다.

이 교수는 특히 1981년 평양에서 만난 여운형의 차녀 여연구씨가 "부친을 암살한 것은 종파분자들이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당시 갈등을 빚은 박헌영측이 몽양을 암살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몽양은 지금까지 극우파 단체 '백의사' 소속 청년 한지근에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온 만큼 이 교수의 주장은 학계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육군 사·여단급 통합 '군사타운' 건설

육군은 사·여단급 부대 단위로 병영시설과 훈련장, 주거시설을 권역별로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군사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박흥렬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병영시설과 훈련장, 주거 및 복지시설을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 재배치해 군사타운으로 건설하는 내용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사·여단급 부대 단위로 권역화해 모든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군사타운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영시설은 기존 소대급 이상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바꾸고 훈련장은 전차와 포병, 항공사격이 가능하도록 기존 훈련장을 확장해 권역화하기로 했다. 주거 및 복지시설은 사·여단급 사령부를 중심으로 권역화해 현대화된 시설로 단지화하고 영외지역의 복지회관도 단지 내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폭력단체 지원금 반환 요구 민주노총 광주본부 거부

광주시가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에 지원한 사무실 전세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데〈본보 16일자 1면〉 대해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19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을 과격폭력 세력으로 매도하는 광주시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광주시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임대 지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민주노총은 사무실에서 단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영승개발(주)(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제우이엔씨(이하"을"이라 한다)은 2007년 7월 17일 개최된 각사의 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기공사업(등록번호:전남-00853)을 분할하여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며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20일

"갑" 영승개발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878
대표이사 박 순 종

"을" 주식회사 제 우 이 엔 씨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878
대표이사 안 상 병

당뇨속보

新기술

당뇨로 고생하십니까?
합병증이 염려되십니까?
이제 당뇨 걱정 끝!!

세계최초인공지능췌장기生氣출시!!
혈당자동조절시스템

"왜!" 당뇨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거나
혈당조절이 안되시는 분은
꼭 상담하세요!

자료 무료제공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나만의 당뇨병 주치의-생기」 관련자료 및 당뇨전문가와의 친절한 상담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선착순100명)

상담전화 011-598-7080

광주천
바재바극장
광주은행 북부지점
←들끼개
광주역→
양동시장
지리산한약방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지리산한약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 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크로바공인중개사
☎432-4560/018-690-3110
(금호동 CBS옆 일신명지상가)
(대표/공인중개사 김 진 수)

♣토지 매도
- 광산구 등임동 (하남-임곡)도로근접 주거지역 대1,227㎡(주택있음)/매2억원(전원주택적합)
- 쌍촌동 아파트정문 3종주거지역 대지 860㎡/ 매87,000만원(보11,000만원/200만원)(증축가능)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온천지구 내 모텔부지 대지 2,080㎡ /매36,500만원(무인텔적합)
-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답1,716㎡(농로접,토지거래허가지역) /매7,000만원

♣상가,건물 매도
- 금호1지구 대로변 아파트상가 2층99㎡ / 매8,300만원(학원적합,광고효과좋음)
- 금호1지구 대로변 아파트상가 1층50㎡ / 매14,500만원(상권좋음)
- 금호2지구 대로변 아파트상가 1층30㎡ / 매12,500만원(보1,500만원/월70만포함)
- 금호동 부영아파트 후문 코너 3층건물 대280㎡건495㎡ 매42,000만원(보8,000만/월200만)
- 금호동 CBS 부근상가 3층건물 대지220㎡건120㎡ 코너 매4억원
- 쌍촌동 치평중 입구 4차로접3층건물 대지214㎡건평320㎡ 매29,000만원(보9,800만/월20만)
- 월곡동 소방서 뒤 2차로 접 1층 상가주택 대지204㎡건평118㎡ / 매 14,000만원

♣상가 임대
- 금호동 대로변 1층아파트상가 50㎡호프&치킨 보2,000만원/60만원(시,권,유)
- 금호동 라인아파트앞 먹자골목 1층식당 66㎡ 보2,000만원/월40만원(시,권,유)
- 금호동 CBS 옆 대로변 1층상가 37㎡ 보1,000만원/월55만원(비,권,유)

*아파트 매도,매수및분양권 접수환영
*광주시내 및 전남권 토지 건물 접수환영
* *귀하의 소중한 재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이전결정 공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 의거 영업정지중인 (주)홍익상호저축은행(전남 목포시 소재)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2에 의거 2007년 7월 20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약이전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계약이전결정 사유
(주)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는 등 제3자 인수 등 을 통한 경영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 및『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2 에 의해 계약이전을 결정함.

■계약이전 결정의 주요내용
- 계약이전 하는 금융기관 : (주)홍익상호저축은행(전남)
- 계약이전 받는 금융기관 : (주)예아름상호저축은행
(주)정리금융공사
- 계약이전일자 : 2007년 7월 20일
(계약이전기준일 : 2007년 5월 31일)
- 계약이전 대상 등 기타 :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서에 의함.

2007년 7월 20일

(주)홍익상호저축은행 관리인 김 석 태
(주)예아름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조 제 형
(주) 정 리 금 융 공 사 대표이사 정 장 흠

산행안내

7월 21일(토)

▲광주토요산악회 단양 도락산 7월21일(토) 07시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gwangjutoyo T.011-608-4267, 011-634-2044

7월 22일(일)

▲팔성산악회 거문도·백도 동백섬 능대 수월산능선 7월22일(일) 05시30분 백운로터리 관성관광앞 출발 ※다음카페:관성관광 ※회비:65,000원(도시락 지참) T.011--605-3477
▲광주베이리산악회 무주 덕유산 7월22일(일) 07시 시청앞 출발 http://cafe.daum.net/ mkyw T.011-601-2894
▲광주산우회 지리산 벽소령, 형제봉 7월22일(일) 07시30분 염주체육관(대인광장, 홈플러스경유) 출발 T.365-3612, 011-649-3612
▲한울산악회 보령 성주산(대천해수욕장) 7월22일(일) 07시30분 국시후탠간대편광주은행(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네이버카페:한울산악회(예약,보험가입) T.011-645-3371, 011-635-9329
▲솔잎산악회 고흥 나로도(봉래산 해수욕장,우주센터경유)출발 7월22일(일) 08시 광주역앞 출발 ※다음카페:광주솔잎산악회 T.011-608-7627, 011-605-5034
▲광주한길산악회 통영 욕지도 천황산 7월22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http://cafe.empas.com/ hangil T.222-3253, 010-7619-0559
▲광주알프스산악회 지리산 한신계곡 세석평전 촛대봉 7월22일(일) 07시30분 대인광장(누안동 홈플러스경유)출발 T.267-5307, 010-4616-1460
▲요산회 곡성 동악산, 형제봉, 최악산 7월22일(일) 07시 광주역출발 T.016-611-1509
▲광주자연보존산악회 보령 만수산 7월22일(일) 07시 무등경기장 출발 cafe.daum.net/ JAYNSAN T.010-3599-0029
▲광주거북이산악회 완도 약산도 삼문산 7월22일(일) 07시 무등경기장건너편 출발 http:// cafe.daum.net/kwjit T.017-602-0077, 011-602-3263
▲울타리산악회 경남 거창 금원산 기백산 7월22일(일) 08시 국제호텔앞(은행원,KT경유)출발 ※다음카페:광주울타리산악회 T.010-5500-3598
▲산과희망 부안 변산(변산해수욕장) 7월22일(일) 08시 광주역 앞 출발 ※다음카페:산과희망 T.011-619-4609
▲광주산가족 지리산 천왕봉~세석,한신골산계곡 7월22일(일) 07시 대인광장(삼성홈플러스경유)출발 T.019-499-1405, 011-9608-3357
▲광주비두리산악회 경남 남해도 금산~상주해수욕장 7월22일(일) 07시30분 광주역(문예회관경유) 출발 ※다음카페:광주비두리산악회 T.011-640-0871
▲삼각산악회 전남 완도군 명사십리해수욕장(신지제공) 7월22일(일) 07시 염주4거리(양동시장,광주역경유) 08시 88테니스장앞 출발 ※예약마감 T.017-601-7633

7월 23일(월)

▲명문산악회 충북 충주시 부산 7월23일(월) 08시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T.011-602-3709, 011-633-9248

7월 24일(화)

▲팔성산악회 충북 괴산군 도명산 화양구곡 7월24일(화) 07시40분 봉암중(백운로터리,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T.011-605-3477
▲염주산악회 거창~무룡산 7월24일(화) 08시 염주체육관(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선착순예약접수 T.011-608-2208

7월 25일(수)

▲청록산악회 경남 산청군 둔철산 7월25일(수) 광주교원공제회관(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T.011-616-5917

7월 26일(목)

▲광주한국산악회 충남 금산 성치산(12폭포) 7월26일(목) 07시50분 염주체육관(문예회관경유)출발 ※예약마감 T.011-615-2279
▲가고파산악회 완도 약산도 삼문산(산행후해수욕) 7월26일(목) 07시30분 광주역파출소 앞 출발 T.011-629-2678

7월 28일(토)

▲광주토요산악회 제천 동산~작은동산 7월28일(토) 07시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gwangjutoyo T.011-608-4267, 011-634-2044
▲평생산악회 완도 보길도 격자봉(예송해수욕장경유) 7월28일(토) 07시 조대약대앞 출발 T.011-625-4222

7월 29일(일)

▲요산회 나로도 봉래산(염포해수욕장) 7월29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T.016-611-1509
▲호남산악회 청산도 매봉산 지리해수욕장 7월29일(일) 07시 광주역광장(문예회관경유)출발 ※다음카페:광주호남산악회 T.010-6246-7231, 011-605-5034
▲광주새무등산악회 고흥 팔영산(남열해수욕장경유) 7월29일(일) 07시30분 대인광장 출발 T.011-609-8533, 011-616-6300

8월 3일(금)

▲광주토요산악회 중국 백두산 (3박4일) 8월3일(금) 13시 광주공항 집결 ※예약마감:7월14일(45명한정) http://cafe.daum.net/ gwangjutoyo T.011-608-4267, 011-634-2044

8월 5일(일)

▲다음카페:(사)요산요수산악회 무안 홀통해수욕장 8월5일(일) 08시 현대병원응급실건너편(백운광장경유)출발 T.011-620-2002

9월 5일(수)

▲광주거북이산악회 백두산 4박5일 특별산행 9월5일(수)~9월9일(일) ※접수마감:7월30일 http://cafe.daum.net/kwjit T.017-602-0077, 011-602-3263

9월 7일(금)

▲한울산악회 백두산 9월7일(금)~9월10일(월) 3박4일 ※7월22일까지 선착순마감 T.011-645-3371